복스럽게 살기, 저주스럽게 살기

(신명기 21:22~23)

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이지만 오늘은 거꾸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구절로부터 보겠는데 <복스럽게 살기, 저주스럽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스럽게 살기, 저주스럽게 살기'
어릴 때의 밥상은 밥상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참 많은 지시와 교육과 꾸지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감사기도하고 먹어라,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소리 내어 먹지 마라, 떨어진 밥알은 반드시 주워 먹어라,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 아저씨의 손이 88번을 움직여야 하므로 밥그릇은 언제나 깨끗이 비워라.'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의 특허라고 할 만한 잔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복스럽게 먹으라.'는 것인데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숟가락으로 밥그릇의 밥을 동그랗게 오목한 산처럼 만들어서 이빨로 긁어먹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 안 나게 먹고, 여럿이 같이 먹는 음식은 자기 앞쪽에서 떠먹되 남의 앞에 있는 것을 먹으면 남의 덕에 살게 된다고 하시고, 복 달아난다고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떨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안 떨고, 밥을 복스럽게 먹어도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큰 복이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생각속의 복은 교회는 다니셨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복을 생각하지 못하셨을 때의 교육이고 지침이었습니다.

'복스럽게 살기, 저주스럽게 살기'라는 말에서 누가 저주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참 복과 참 저주를 알아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저주'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거나 바람,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불행입니까?
수 없이 많은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어도 본인이 저주받은 자

로 생각하며 죽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장면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저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분들을 따라가는 신앙의 후배들입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복스럽게 살고 저주스럽게 살겠습니까? 모르면 저주스럽게 살면서도 복스럽게 산다고 착각할 수 있고, 복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복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연합해야 될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저주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주스럽게 살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습성을 따라 일상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은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인데 자유의 폭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레일 삼아 달려야하는 기차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주의 상태는 바로 이 레일 위를 벗어난 기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레일 위를 벗어난 기차가 땅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며 사는 것이 저주스럽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나머지 사사로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 나타나게 되고, 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사로운 모든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주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시작할 때의 상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저주스러운 삶의 특징은 삶을 시작할 때에 굶주리고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스럽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동료들과의 생활, 인간들과의 사회생활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에서 부부생활, 부모로서의 생활, 자녀로서의 생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사장님으로서의 생활, 부장님으로서의 생활 등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복스러운 삶입니다. 저주스럽게 사는 것은 직장에서 월급이 오른다거나 승진한다거나 성과를 많이 올린다거나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마음의 기쁨을 챙기지 못하고 삶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made in the world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은 반드시 made in heaven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생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살게 된 삶에서는 이 땅에서 생산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으며 사는 것이 저주스럽게 사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당시 구약시대 선민사회에서 사형에 처할만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가 나오는데, 선민사회에서 사형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교수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높은 말뚝이나 창끝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 복지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는 삶의 공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목적이 있더라도 '시체를 나무위에 달아 놓은 상태로 밤을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체 하나 나무에 걸어 놨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늘 말씀드렸듯이 시체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의도의 흐름이 끊어진 장소와 사물을 상징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대상을 삶의 공간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이고, 이 복지가 저주의 상태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지를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시는데 그 복지가 저주의 장소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청결의 반대입니다.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의도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들은 없어야 될 것이기에 더러워지는 것이고 바로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스럽게 사는 것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복스럽게 살기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주스러운 삶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늘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여성 포로가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을 경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며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회적인 가치기준으로 볼 때에 여성 포로는 더 이상일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 하찮은 존재를 아내로 삼을 때에 그 하찮은 존재가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하시는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나와 관계가 있게 될 때에는 그 하찮은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있게 하시기 위해 중간과정으로 설정하신 부모의 존재에 대해 한 달 동안을 애곡하게 한 것인데, 부모는 이 여자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통로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서울대를 간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들어가는 대학이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20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봐도 모두가 다 일류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불합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에 우습게 여기는 지방대를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것이 그 학생에게는 서울대학입니다. 그 학생의 인생에서 그 대학이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적을 따라 간다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학력, 외모, 권력이라는 세상적인 기준이 판단하는 결과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에 반드시 저주스럽게 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다는 생각이 저주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 포로는 가장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하찮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것도 바로 저주 받은 상태의 표현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기쁨을 연상해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기쁨으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보이는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는데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기쁨과 만족이 내게 있을 때에,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왜 저주의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바로 저주받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준비할 때부터 내 의도를 가지고 살았고, 내 의도대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빨리 돌아서세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전문대학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로 들어갔다면 일류대학이고 서울대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습성의 방식은, 두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서 장자삼기 규례를 보여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아내를 좋아하고, 다른 한 아내는 밉살스러운데 그

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은 차남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차남을 장자의 자리에 앉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사회적 기준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마음이 강렬하게 좋아하는 그것이 객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그것이 곧 나의 진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참된 기준은 내 밖의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습니다. 그 의도 속에 살면 행복한 것이고 의도에서 벗어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분과 호불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거나 싫어해도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내 원하는 취향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이 내 맘에 들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어지는 차가 내 차가 되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디자인과 구성요소에 대해서 지시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자세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사람보다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로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서 복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서 옷이 있거나 없거나 내 기쁨과 만족에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저 옷이 아니면 안 되고, 저 백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나는 열심히 저주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대할 때에도 그것으로 어떠한 만족과 기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백을 사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을 사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좋아해서 이루겠다고 한다면 이미 저주가 나를 휘감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주스럽게 사는 습성의 방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자녀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인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갈등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인데 주어진 집안이나 부모, 형제, 외모, 나라, 매일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것이고 저주스럽게 사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다니십니까?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그 직장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직

장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무조건 좋다고 믿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목사님 물러가라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목사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기나 합니까?
눈을 떴더니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저주스러움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저주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복스러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스럽게 사는 것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저주스러움을 알지만 내가 세상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선호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고, 주어진 것들에 무조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이라고 하십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바로 나이고 내 힘으로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존재자체가 사회적 기준을 벗어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나는 저주 덩어리이고 저주가 나의 뼈까지 침투해서 저주에 점령당해 버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3:13절에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저주가 내 뼛속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죽지 않는 한 저주의 습성이 끝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ade in heaven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마음이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 전에 본래 의도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듯이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도만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주스럽게 사는 것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 나 자신이 저주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음도 알 것이오니, 이 깨달음을 통하여 저주스럽게 사는 삶이 끝나고 복스러운 여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